

월요광장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이달 초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방송 및 영상콘텐츠 견본시인 '미디비(MIPTV) 2016' 행사에 다녀왔다. 행사 기간 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은 KBS, MBC, SBS, CJ E&M 등 방송 관련 기업 17개사와 아이코닉스, 시너지 미디어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 17개사 등 총 34개 기업이 참여한 한국공동관을 현장에서 운영했다.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결과, 1천만 달러가 넘는 높은 수출 계약액을 거두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 30여 개국에 수출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이스라엘에 추가로 판매되었고, 이란 경제 제재 등으로 막혀 있던 중동에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대거 판매되는 쾌거도 달성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로 황금알을 깨는 '방송 포맷' 산업

수출 성과 외에도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한국 방송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위상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한편, 미디비 사전 행사로 열린 '미포맷(MIPFORMATS) 2016'에서도 한국 방송 콘텐츠의 활약은 대대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미포맷에서 꾸준히 예능·드라마 등 다양한 우리의 인기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소개하는 쇼케이스를 개최해왔다. 최근 글로벌 방송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포맷'은 일종의 방송 저작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브랜드·크리에이티브·경험·제작 노하우 등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저작권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K-포맷 쇼케이스에는 '태양의 후예', '마이 리틀 텔레비전', '배우학교' 등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다큐·예능 프로그램 13개가 소개됐다. 쇼케이스 규모가 지난해보다 두 배로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가득 찼으며 행사 이후 해외 방송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포맷 비즈니스가 방송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자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우리

에게는 낯선 용어인 포맷이 널리 쓰이게 된 계기는 1989년 영국에서 만든 퀴즈쇼 프로그램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Who want to be a millionaire?)의 성공이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의 포맷은 무려 92개국에 수출되었으며 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이후 방송 포맷은 수출 효과 폭목이 되었으며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전 세계의 포맷 시장 규모는 현재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00개 방송 포맷의 시장 가치는 29억 달러에 이른다. 영국과 미국 등 전통적인 방송 포맷 선진국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이 주목할 만한 신흥 포맷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의 포맷 수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해외 방송 포맷을 수입하는 순수입국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1년 인기 음악 경연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의 포맷이 중국에 수출돼 큰 인기를 끌면서 '우리 결혼했어요', '런닝맨' 등의 예능 프로그램 포맷이 중국에 잇따라 진출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방송 포맷 수출의 상승률은 연평균 105%에 달했고, 수출 단가

역시 꾸준히 상승해 왔다. 얼마 전 방송 1주년을 맞은 MBC의 주말 인기프로그램 '일밤-북면가왕'의 경우, 지난 1년간 중국을 비롯해 대국·필리핀·캄보디아·이탈리아·인도 등 6개국에 수출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 방송 포맷 수출이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아직 우리의 포맷 산업은 영국·네덜란드·미국 등 포맷 선진국에 비해 가야 할 길이 멀다. 포맷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사 차원의 자체 역량 강화 노력과 함께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포맷산업 육성을 위해 포맷 파일럿 및 포맷 바이블(프로그램 제작 설명서) 제작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또한 연구 개발부터 기획·제작을 거쳐 해외 유통까지 이르는 방송포맷 산업의 전주기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국 등의 수입 규제 대응과 해외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을 통해 우리 방송 포맷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보편성을 동시에 갖춰 글로벌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 방송 포맷이 세계인의 안방과 거실의 TV,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화면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한다.

社說

수도권까지 상륙한 국민의당 '녹색 바람'

선택 4·13 D-2

20대 총선이 이를 앞두고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당 '녹색 바람'이 예상외로 잘 맞았다.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5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 터라 일단 호남 제당은 확실해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남 지역 국민의당 지지율은 50.8%로 전주 대비 10.3% 포인트나 올랐다. 국민의당은 호남 28곳 지역구 중 20곳 이상에서 당선을 확실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 주말 내내 수도권 집중 유세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돌풍이 수도권에까지 미칠 수 있을지 여부다. 국민의당은 자체 조사 결과, 상승세가 서울 관악구가 경기 안산 등 수도권 지역구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당초 수도권에서 안 대표마저도 힘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곳곳에서 역전극과 골든크로스까지 내다보는 분위기다.

문재인의 조건부 '대권 포기' 진정성 있나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문재인 전 대역 판세가 국민의당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5·18 국립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은 것이 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유권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심을 거듭했을 그의 호남 행에 대한 반응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미 사람들 마음이 떠났다. 투표일이 임박해 방문한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있다가 호남 판세가 다급해지자 광주를 찾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어찌 됐든 4·13 총선을 불과 다섯 달 앞두고 호남을 찾은 문 전 대표는 사과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에서는 "호남에 고립감과 상실감만 안겨 드렸으며 한껏 몸을 낮추었다. 그는 또 "호남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야당 후보는 그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며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둔다면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권 행보의 일환이라는 비판에 대한 정치적 '배수진'이자 등 돌린 호남 민심을 되돌려 호남 열세를 뒤집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앞으로 문 전 대표가 총선이 끝난 후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대선 도전 포기의 전제로 구체적인 지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호남 28개 의석 가운데 절반을 넘기지 못하면 결단하겠다는 식의 확실한 수치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는 일종의 '압박'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호남민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야권은 물론 정치 지형 전체의 가능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대의와 명분을 좇는 전략적인 투표가 또 한 번 필요한 시점이다.

無等鼓

호남사람이면 '별교 가서 주먹 자랑 말라'는 소리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이 생긴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들은 드문 것 같다.

타 지역 사람들은 별교 출신 깡패들이 많거나 전라도 사람들이 거칠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근거 없는 막연한 이유를 든다. 특히 이 표현을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큰 문제다. 정확한 어원을 모르는 우리 지역민들도 대략 그런 연유에서 생긴 말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

보성군과 지역 사회는 수년간 고성과 연구를 통해 '별교가 서 주먹 자랑 말라'는 말이 일제강점기 때의 병창과 관련된 표현임을 밝혀내고, 이를 알리는 데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민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별교에 해로·육로를 조성해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로 만든 다음, 수탈 통로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인구 3만 명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광주와 목포 다음으로 많은 거의 5만 명이 이르렀다.

당연히 상권이 커지고, 주먹패도 생겨났으며 일본인들도 몰려들었다. 치

안을 명목으로 경찰서까지 생기면서 지역민과 일제의 마찰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당시 낙안에 사는 안규홍이라는 머슴이 있었다. 그는 별교 장터로 나무를 팔러 갔다가 다리 위에서 말을 타고 가던 현병이 조선인을 채찍으로 내리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안규홍은 현병을 말에서 끌어내려 주먹으로 때렸는데, 현병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숨지고 말았다.

이후 달아난 안규홍은 의병대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20년 동안 서 주먹 자랑 말라'는 말이 일제강점기의 병창과 관련된 표현임을 밝혀내고, 이를 알리는 데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민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별교에 해로·육로를 조성해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로 만든 다음, 수탈 통로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인구 3만 명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광주와 목포 다음으로 많은 거의 5만 명이 이르렀다. 당연히 상권이 커지고, 주먹패도 생겨났으며 일본인들도 몰려들었다. 치

별교 주먹

법조칼럼



김영식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정에는 창문이 없다. 인공으로 밝힌 조명만 있을 뿐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없다. 밖에는 목련,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다투듯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런 호시절에도 법정에는 서릿발 같은 추공과 비련함이 코차한다. 여기 피고인이 있다. 피고인은 돈도 없이 식당과 술집에서 음식이나 술을 먹었다는, 이른바 무전취식으로 기소되었다.

"(검사 의견진술하시죠.) 피고인은 종전에도 스무 차레나 돈도 없이 술을 마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채 선량한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엄한 처벌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후변론하

술과 범죄

시죠.) 피고인은 나이 마흔이 넘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알코올중독으로 술만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아무 데나 가서 술을 먹곤 합니다. 피고인은 엄한 형벌보다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마지막으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법정에서 흔히 마주하는 모습이다. 술로 인한 범죄는 이외에도 많다. 음주운전, 폭력, 상해, 업무방해, 가정폭력, 공무집행방해까지. 때로는 절도의 경우에도 음주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올해부터 형사항소부를 맡게 되었는데 처리하는 사건의 절대 다수가 술로 인한 범죄다. 그 수치가 놀란다. 물론 필자도 술을 마신다. 때론 취할 만큼 마시기도 하지만 술로 인해 인생의 낭패를 경험하는 피고인들을 보면 곤혹스럽다. 어쩌다가... 술을 안 마시면 그렇게 순하신 분들이... 많은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으니 이번만 선처해 달라'고 판사에게 반성문이나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한다. 그때만은 진심일 게다.

또 그만큼 절박하기도 하다. 하지만 음주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보다 몇 배나 높다.

군인 전문기관의 통계를 들어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알코올중독자도 300만 명이상이라고 한다. 일을 마친 후 고단한 몸을 적시는 술 한 잔은 삶의 큰 위안이다. 많은 사람이 술로 위로받기도 하지만 또 술 때문에 고통받는다. 왜 술을 마시고 이렇게 병행까지 하였느냐고 물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보인다.

또 술로 인한 범죄는 대부분 빈곤층과 관련이 있다. 몇 년 전 국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 일 부 언론사와 경찰당국이 술을 마시고 경찰관과 싸우는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상해, 업무방해를 주폭, 주취폭력이라 부르면서 그에 대한 처벌을 벌인 적도 있다. 그 때문인지 범인도 사투 엄한 처벌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법은 없는 사람에게만 엄하다는 불평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술을 파는 이 도시가, 술에 관대한 우리의 인심과 제도가 모두 공범자인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범죄는 사회적이다. 범

죄를 저지른 개인의 심성과 자유의지만 탓할 게 아니다.

국가가 주제를 받아 알코올중독치료병원도 많이 있고, 서민들이 고된 일과를 마친 후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운동·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동네마다 많이 지으려면 좋겠다. 그래서 노동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술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달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담뱃값에는 300~400원에 이르는 건강 증진부담금이 매겨지고 그 돈으로 금연 홍보나 흡연자를 위한 비용으로 쓴다는 데 술에는 주류협회의 반대로 그마저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알코올 중독치료전문병원(KARF)이 주류협회의 지원금 중단으로 2013년에 폐업하였다는 보도도 보인다.

죄와 벌은 상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벌보다 치료를 우선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 술로 인한 범죄에 관용을 베풀자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과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는 지름길이다. 엄한 형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인으로서의 달리 해방이 없어서 늘 마음이 아프다.

기고

국민이 깨어나야 나라가 산다



김용하 광주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얼마전에 현대판 지부상소(持券上疏)의 광경이 보도되어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다. 임란전 선조시에 중봉 조헌과 조선 말 고종때 면암 최익현 선생이 외침에 저항하며, 도끼를 들고 상소를 올린적이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 도끼를 앞세워 놓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새 우리나라는 선거열풍에 휩쓸려 있다. 날마다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경한 사건들로 언론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각당에서 공천작업을 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승자와 패자의 애환이 날마다 보도되고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사회 지도급 인사들임에는 틀림 없을 것이다.

예전천천으로 당내 경선에 응모하거나 예비후보 등록을 할 정도면 자신이 국민의 대표로 내세울만한 인품이나 철학, 경륜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자 하는 자질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사람마다 평가의 기준이 다르고 검증을 통해 가장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 선거이고 정당의 존재이유는 정권을 잡아 집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거는 후보자 개인 뿐만 아니라 각 당 자체도 정당 투표를 통해 따로 선택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각 당 자체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후보자를 일차 검증하여 상품을 내놓게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상품을 고르는 과정에서 국민의 눈에 맞추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 계파나 정파적 이익에 준해서 인물을 선정해 내놓는 경우가 있다. 현존하는 정당들이 거의 공천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현대판 지부상소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선출하지만 지역의 대표성보다도 국가의 대표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므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시행착오를 통해 개인이 나 정당에 이미지에 훼손을 가져 오는 일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공은 국민에게 넘어왔다. 각 정당에서 추천한 인물들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중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심없이 봉사하고 헌신 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능력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번번히 선거에 실패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거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지역적 당파와 지연, 학연등에 얽매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후보자들의 온갖 갑언이설에 현혹되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요사이 후보자와 소속정당에서도 각기 자신의 소신을 밝히거나, 온갖 정쟁을 소나기 퍼붓듯 쏟아내고 있지만, 개인의 권력욕과 추종하는 사람들의 성취와 당리당락 차원에서, 일단 표를 얻

고 보자는 심리로 경쟁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투표일이 휴일이라해서 여행이나 정치담소 등으로 기권을 한다거나, 인물의 도덕성이나 사상과 경륜, 업무추진력들을 세세히 점검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사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과 미사일발사가 유발한 국제적제재와 남북간의 극한적인 대립속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국가안보적 측면과, 경제의 침체로 인해 국가의 명운이 달린 엄중한 상황이다. 이러한 중추적인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고, 공정한 선거로 참된 애국적 인사가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각 당에서 내세운 이념과 정책과 공약이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고, 국민민복의 바탕에서 시작되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역사적 주체성을 갖고, 자율과 합리성을 발휘하여, 공정한 투표를 통해,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깨어나 나라가 산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such as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